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8 _ 2014. 12 | 배상률 부연구위원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8 _ 2014. 12 www.nypi.re.kr

발행일 2014. 12. 26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전화 044-415-2114 팩스 044-2369-237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VOL.58_2014. 12 ▶ 배상률 부연구위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II. 미디어교육 제도화에 대한 조사 결과	04
III. 정책제언	18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오늘날 매체(media)는 청소년들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미디어 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인들의 미디어 소비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젊은 세대는 한 개 이상의 매체를 동시에 소비하는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능력 면에서 이전 세대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월등함(Kirsh, 2010).
- ▶ 새로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보급률도 최근 들어 매우 빨라지고 있음. 전화기, 휴대전화기,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ICT 확산속도를 능히 가늠해 볼 수 있음. 미국에서 일반 전화기, 휴대전화기, 스마트폰이 전체인구의 40% 보급률을 이룬 기간은 각각 39년, 6년, 2.5년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DeGusta, 2012).
- ▶ 청소년들의 ICT와 뉴미디어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2011년 36.2%에 불과하였으나 2년 사이 81.5%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음(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의 77%는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친구나 팔로워(follower)로 연결된 사람이 2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2011년 4%의 5배인 21.6%에 달했음(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임. 우리사회의 절반은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근심하며, 이 같은 위험에 대책 없이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하는 동안, 다른 절반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모습을 보임.

- ▶ 이 둘의 양극단적 모습은 미디어 결정론(media determinism)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디어를 포함한 수많은 기술들은 사회적 힘과 개인의 역량에 의해 사용 방향과 효과가 결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Croteau, Hoynes, & Milan, 2012). 따라서 사회가 갖는 미디어에 대한 시선은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는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 우려와 제재에 앞서 관심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됨.
- ▶ 영국, 캐나다 등 서구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미디어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미디어 교육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임.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의 시행이 절실함.
- ▶ 이를 위해 내실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미디어교육을 책임질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 지금까지 교육학계, 언론학계 등 학자들과 사회각계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는 많았음. 그러나 미디어교육의 해외사례나 중요성 등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거나 미디어교육의 효과성 연구에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임. 이제는 거대 담론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을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학계 및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각각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추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 미디어교육 제도화에 대한 조사 결과

■ 초·중·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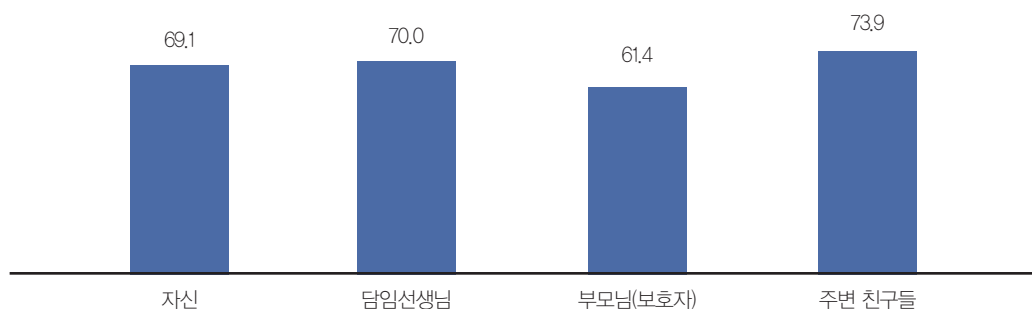
【표 1】 주요 설문 영역 및 내용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1.58\%$
조사방법	우편조사(mail survey)
표본추출	지역별/교급별 할당 표집(Quota Sampling)
표본크기	3,823명(초등: 1,389명, 중등: 1,427명, 고등: 975명, 무응답: 32명)

▶ 학생이 생각하는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 능력 비교

- 학생 자신의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 능력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본인의 능력이 높다고 답했음.
- 학교급이 높을수록 매체 이용 및 활용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0점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주변 친구들, 자신, 담임선생님, 부모님 순으로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음.

(BASE= 전체, N=3,823,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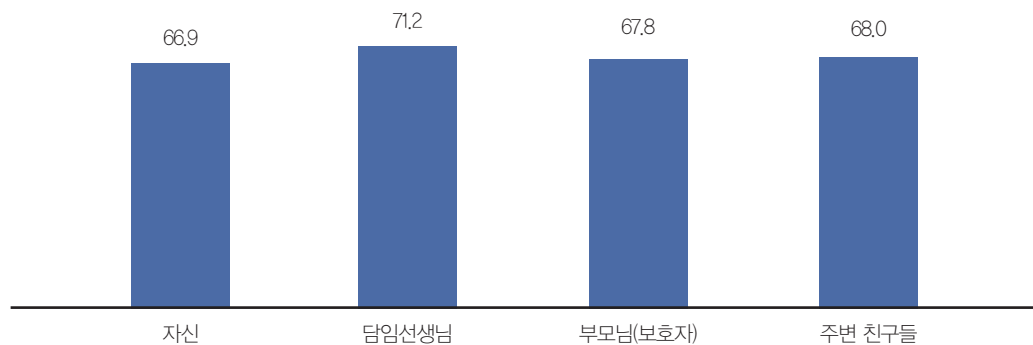


【그림 1】 학생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 능력

▶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비평 및 분석 능력

- 학생 자신의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비평 및 분석 능력을 묻는 질문에 34%가 '높음'으로 응답하였음.
- 교사, 주변친구들, 부모님, 자신의 순으로 비평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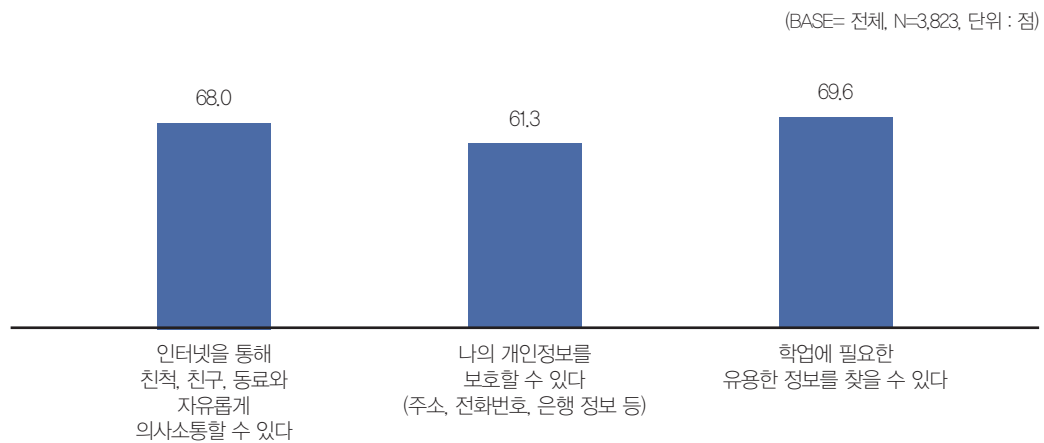
(BASE= 전체, N=3,823, 단위: 점)



【그림 2】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비평 및 분석 능력

▶ 인터넷 활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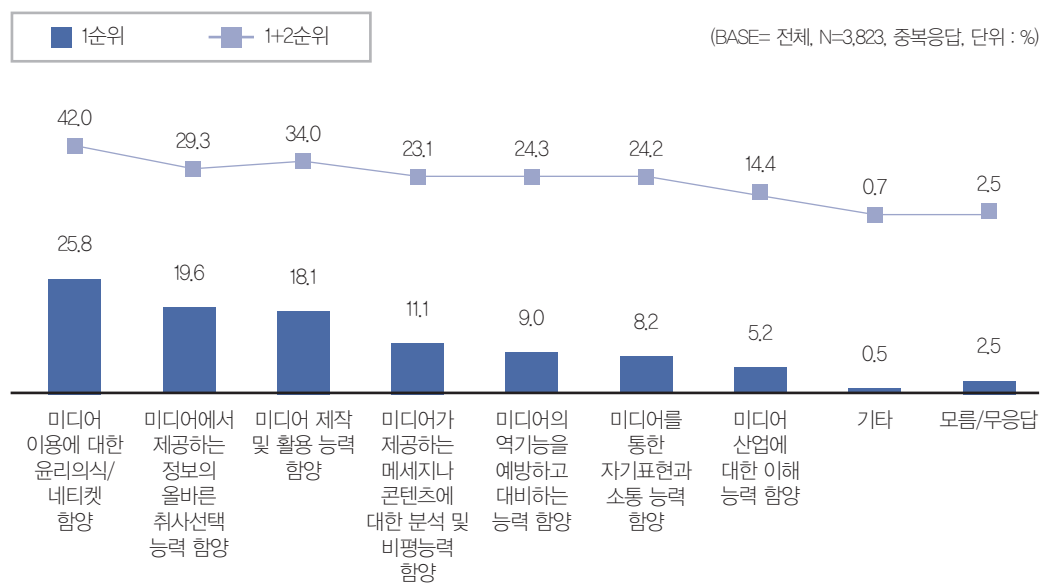
- 인터넷을 활용하여 친척, 친구, 동료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였으며, 남학생이 58.5%, 여학생이 64.6%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임.
-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업에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임. 남학생의 비율은 59.1%, 여학생의 비율은 68.8%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환산했을 때 세 항목 모두 70점 이하에 머물렀음.



【그림 3】 인터넷 활용 기술 능력

▶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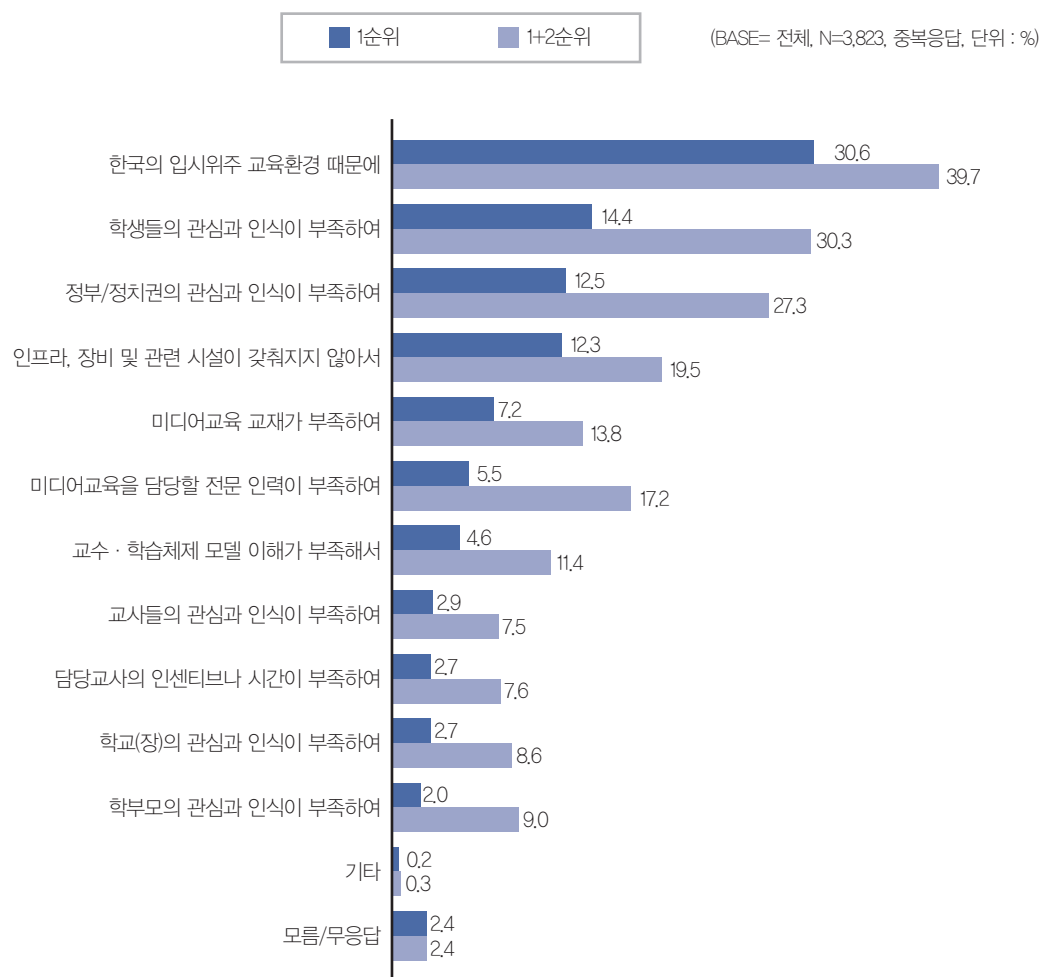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점에 대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네티켓 함양’이 42.0%(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미디어 제작 및 활용 능력 함양’(34.0%),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택 능력 함양’(29.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할 점

▶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이 39.7%(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여'와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여'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음.



【그림 5】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 초·중·고 일반교사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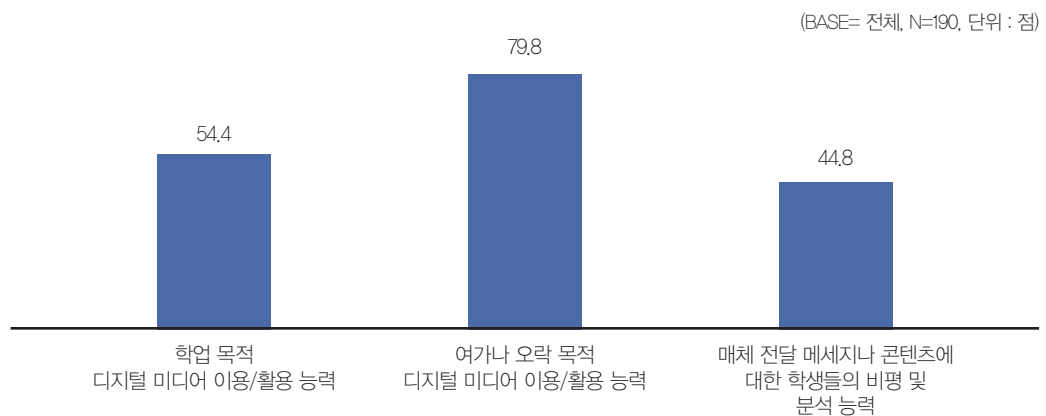
▶ 설문조사 설계 개요

【표 2】 주요 설문 영역 및 내용

조사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7.11\%$
조사방법	우편조사(mail survey)
표본추출	지역별/교급별 할당 표집(Quota Sampling)
표본크기	190명(초등: 64명, 중등: 73명, 고등: 53명)

▶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매체가 전하는 콘텐츠 비평/분석 능력

-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및 활용 능력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54.4점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생각하는 주변 학생들의 여가나 오락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및 활용 능력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79.8점으로 나타남.
-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비평 및 분석 능력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44.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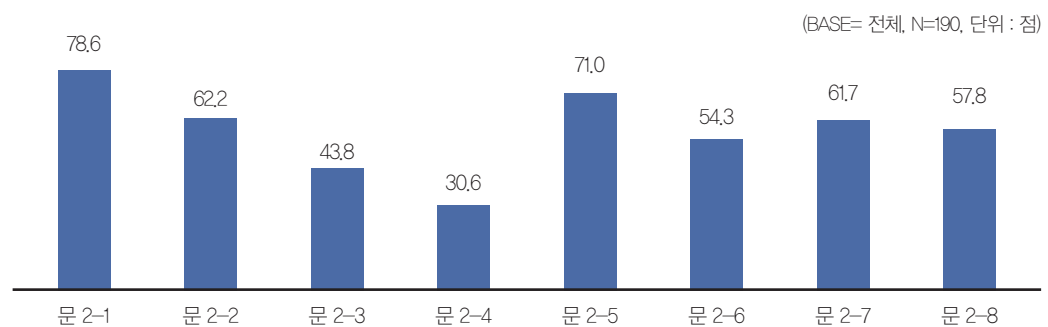


【그림 6】 교사가 본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매체가 전하는 콘텐츠 비평/분석 능력

▶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견

- 학생 대상 학교 내 미디어교육 필요성에 대해 긍정 응답은 100점 만점 기준 78.6점으로 나타남.

- 미디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 응답은 100점 만점 기준 62.2점으로 나타남.
- 미디어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 응답은 100점 만점 기준 43.8점으로 나타남.
- 미디어교육을 학교입시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 응답은 100점 만점 기준 30.6점으로 나타남.
- 미디어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긍정 응답은 100점 만점 기준 71.0점으로 나타남.
- 학교 내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0점 만점 기준 54.3점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100점 만점 기준 61.7점으로 나타남.
- 교사들이 생각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들의 관심도는 100점 만점 기준 57.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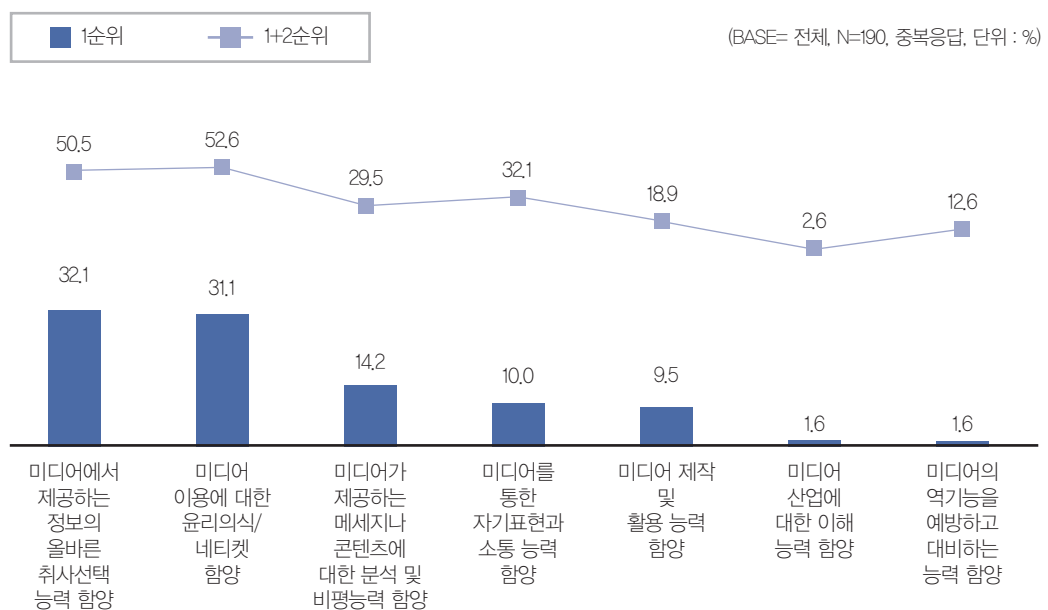


Q2-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Q2-2	미디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Q2-3	미디어교육이란 별도의 독립교과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Q2-4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Q2-5	미디어교육 희망자에 한해 학교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Q2-6	우리나라 교육상황에서 학교 내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비현실적이다
Q2-7	미디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Q2-8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다

【그림 7】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견

▶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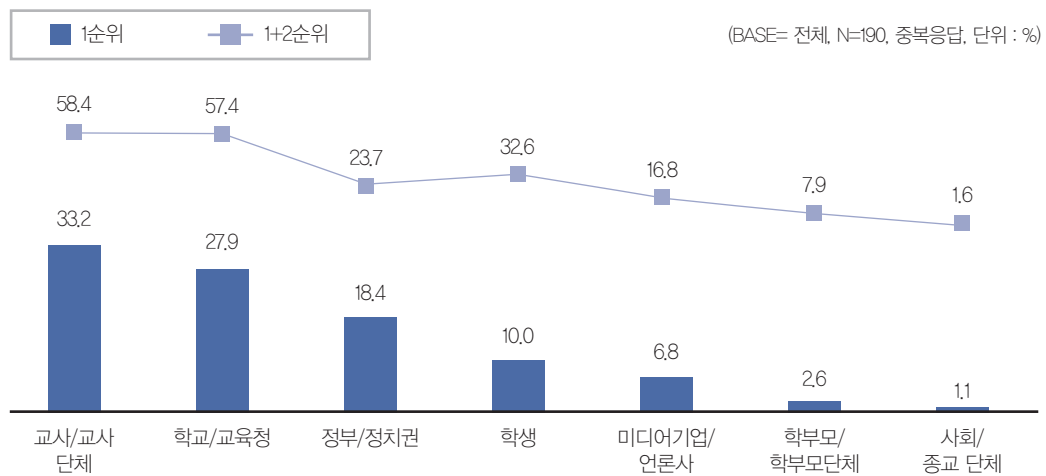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점에 대해 ‘미디어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네티켓 함양’이 52.6%(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올바른 취사선택 능력 함양’(50.5%),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능력 함양’(3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할 점

▶ 미디어교육 활성화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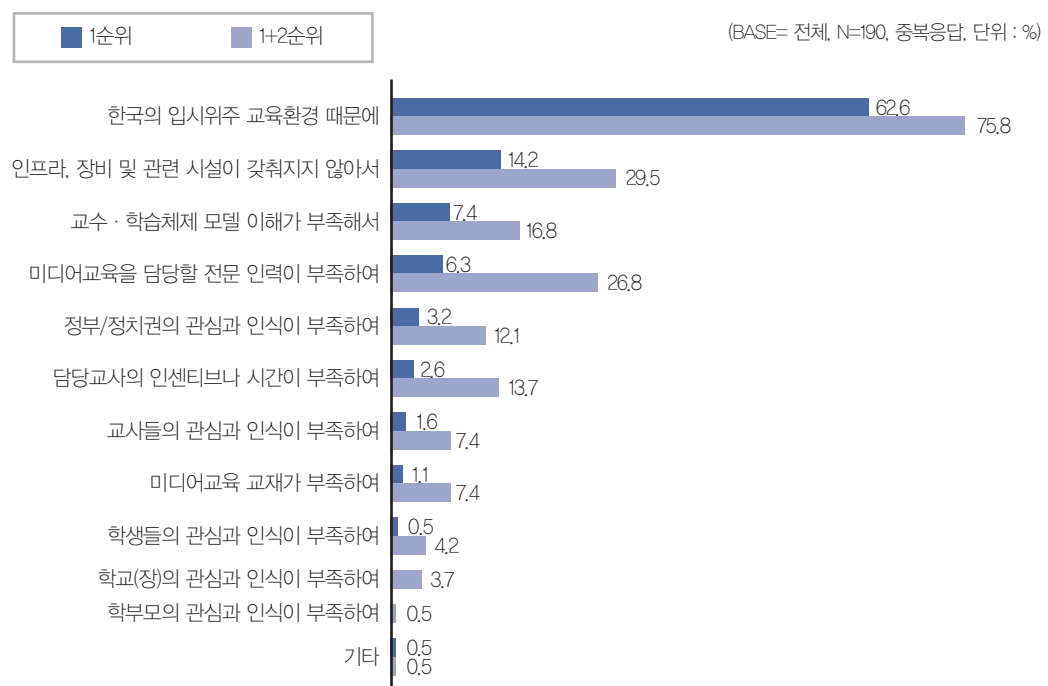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교사/교사단체’가 58.4%(1+2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학교/교육청’(57.4%), ‘학생’(32.6%), ‘정부/정치권’(23.7%)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미디어교육 활성화 주체

▶ 미디어교육 활성화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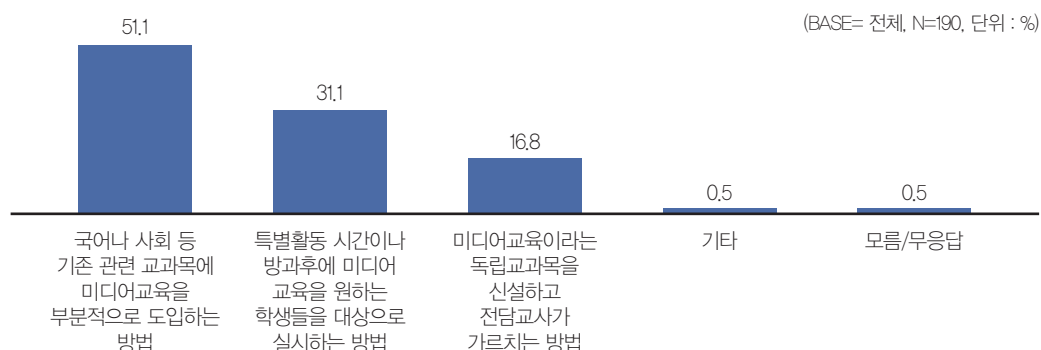
-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환경 때문에’가 75.8%(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인프라/장비 및 관련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29.5%,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가 2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미디어교육 활성화 장애요인

▶ 미디어교육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초기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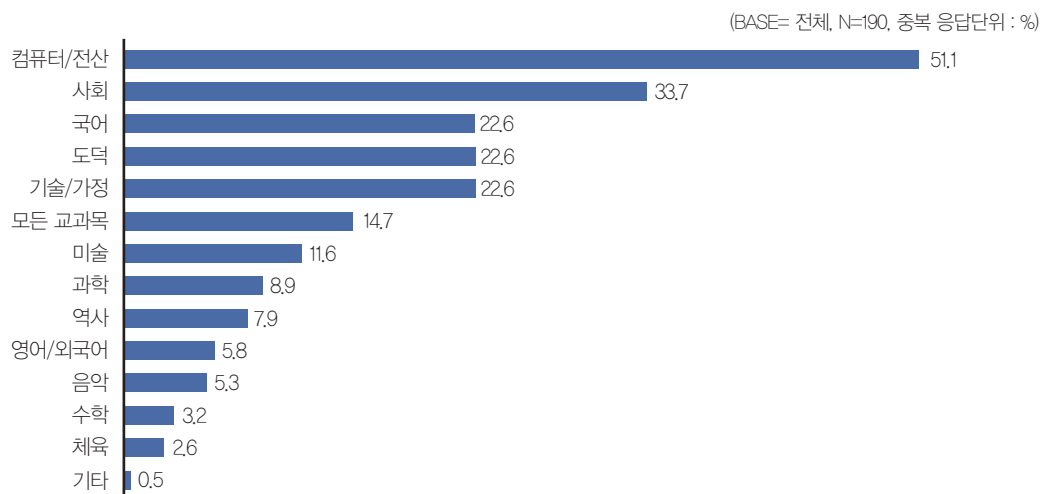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적용할 방법으로 ‘국어나 사회 등 기존 관련 교과목에 미디어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후에 미디어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31.1%) ‘미디어교육이라는 독립교과목을 신설하고 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방법’(1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미디어교육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초기 적용 방법

▶ 미디어교육 부분적 도입을 위해 적절한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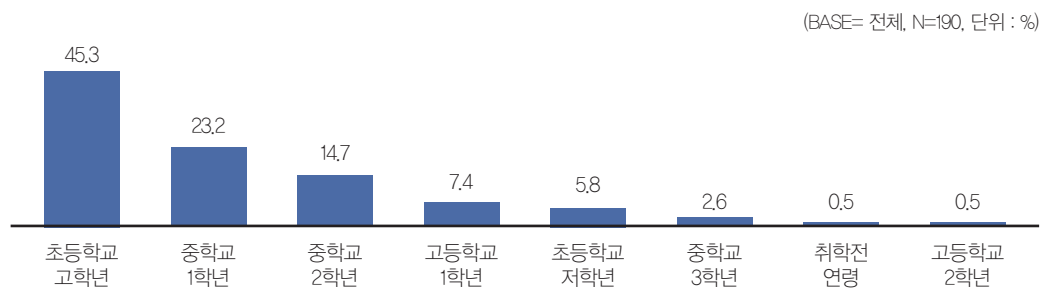
- 학교 내 미디어교육을 기존 관련 교과목에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미디어교육을 어느 교과목에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란 질문에 ‘컴퓨터/전산’(51.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사회’(33.7%), ‘국어’, ‘도덕’, ‘기술/가정’(22.6%), ‘모든 교과목’(14.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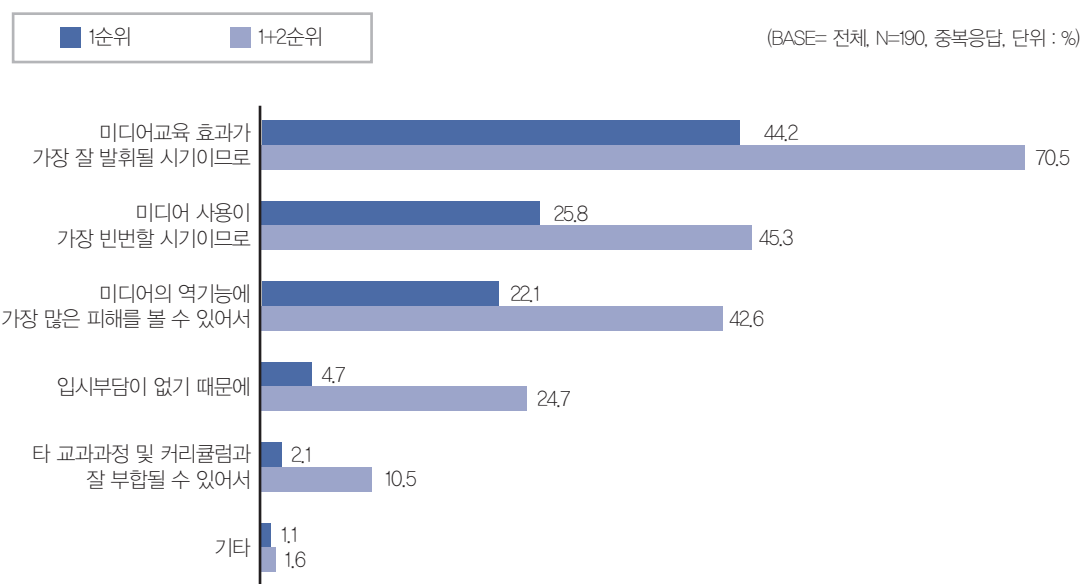
【그림 12】 미디어교육 부분적 도입을 위해 적절한 교과목(중복응답)

▶ 미디어교육에 적합한 교육대상 학년 및 이유

- 학교 내 제도화된 미디어교육을 특정 학년에만 시행하는 방법을 정부가 채택한다는 가정 하에, 어느 학년이 교육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지를 묻은 질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중학교 1학년'(23.2%)과 '중학교 2학년'(14.7%) 순으로 나타남.
- 해당학년을 선택한 이유를 묻은 질문에 '미디어교육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시기이므로'가 70.5%(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디어사용이 가장 빈번할 시기이므로'(45.3%), '미디어의 역기능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서'(42.6%)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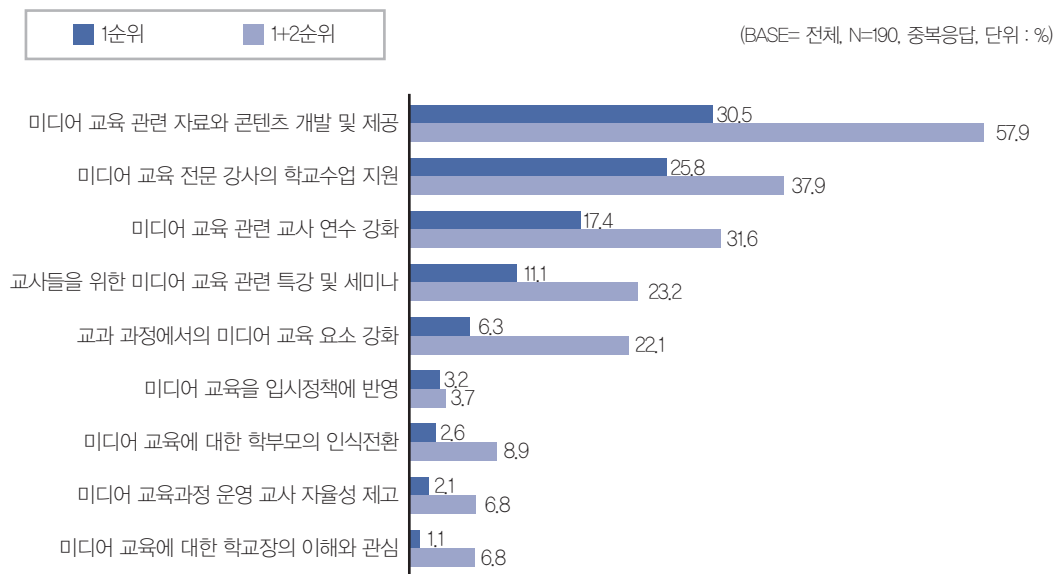
【그림 13】 미디어교육에 적합한 교육대상 학년



【그림 14】 해당학년이 미디어교육에 적합한 이유(중복응답)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자료와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이 57.9%(1+2순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의 학교수업 지원’(37.9%),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강화’가 3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

■ 미디어교육 현장전문가와 일반교사 비교 분석

▶ 미디어교육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미디어교육 현장 전문가 152명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응답자는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현재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6명, 학교 내 미디어 담당 교사 92명,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등 언론계 종사자 29명 등으로 구성. 이들 중 19명은 연구자가 개별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133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최한 ‘2014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참가자들로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에 응하였음.

▶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견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와 전문가 집단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과반수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교사 집단의 경우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교과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찬성하는 입장이, 교사집단은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음.
-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입시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음.
- 미디어교육 제도화가 비현실적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전문가 집단은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 교사 집단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 더 많았음.
- 미디어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교사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견

질문내용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	0.0	0.0	2.0	39.6	58.4
	교사	0.0	0.5	13.2	53.7	27.9
미디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0.7	8.1	32.2	32.9	26.2
	교사	3.2	7.4	42.6	24.7	17.9
미디어교육이 별도의 독립과목으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3.4	18.4	30.6	27.9	19.7
	교사	9.5	32.1	32.6	13.7	6.8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 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가	19.6	29.7	32.4	8.8	9.5
	교사	24.2	37.9	24.7	5.8	3.2
미디어교육 희망자에 한해 학교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0.7	1.4	6.8	51.4	39.9
	교사	0.5	4.2	21.6	52.6	16.3
우리나라 교육상황에서 학교 내 미디어교육 제도화는 비현실적이다	전문가	11.6	25.3	29.5	21.2	12.3
	교사	4.2	19.5	35.3	29.5	7.4
전반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전문가	1.4	12.2	19.6	47.3	19.6
	교사	1.6	9.5	37.9	36.3	10.5
전반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다	전문가	2.0	15.4	33.6	34.9	14.1
	교사	1.1	11.6	46.8	28.9	7.4

▶ 미디어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점

-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능력 함양’(56.7%; 1+2순위 기준)과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능력 함양’(52.7%)을 꼽았음.
- 교사들은 ‘미디어이용에 대한 윤리의식 및 네티켓’과 ‘정보의 취사선택능력 함양’을 들었음.
-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핵심역량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한 대목임

【표 4】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견

		정보의 취사 선택 능력 함양	미디어 제작 및 활용 능력 함양	메시지나 콘텐츠 분석 및 비판 능력 함양	미디어 이용에 대한 윤리의식/ 네티켓 함양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 능력 함양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능력 함양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 능력 함양
1위	전문가	24.7	8.7	32.7	10.0	0.7	0.7	22.7
	교사	32.1	9.5	14.2	31.1	1.6	1.6	10.0
1위+2위	전문가	44.7	11.3	56.7	21.3	3.3	9.3	52.7
	교사	50.5	18.9	29.5	52.6	2.6	12.6	32.1

▶ 미디어교육 활성화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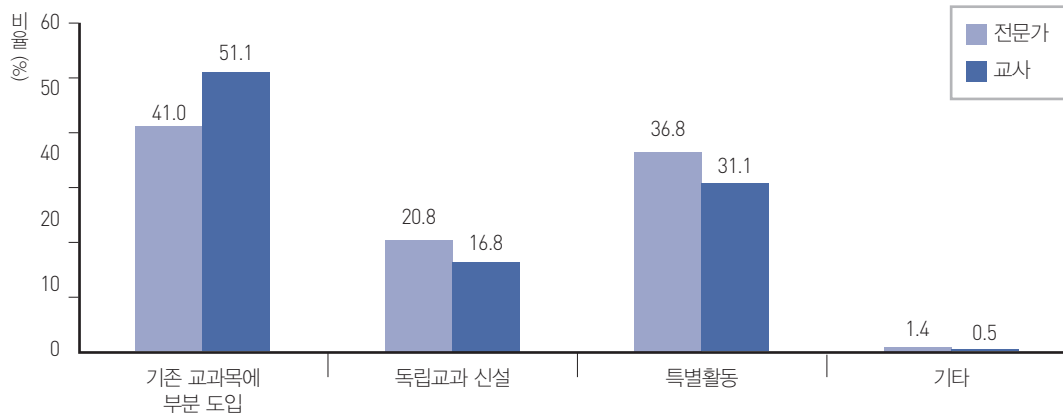
- 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 모두 60% 이상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꼽았음.
- 미디어교육 활성화 장애요인을 묻은 이 질문에 두 집단이 매우 유사한 응답을 하였음.

【표 5】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인프라, 장비 및 관련시설 미비	교수· 학습 체제 모델 이해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담당 교사의 인센티브나 시간 부족	미디어교육 교재 부족	미디어교육 담당 전문인력 부족
1순위	전문가	12.1	4.7	64.4	6.0	0.7	1.3
	교사	14.2	7.4	62.6	2.6	1.1	6.3
1순위 +2순위	전문가	24.2	16.1	76.5	12.8	2.0	14.1
	교사	29.5	16.8	75.8	13.7	7.4	26.8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인식 부족	학교(장)의 관심과 인식 부족	교사들의 관심과 인식 부족	학부모의 관심과 인식 부족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 부족	기타
1순위	전문가	4.7	1.3	3.4	0.0	0.7	0.7
	교사	3.2	0.5	1.6	0.0	0.0	0.5
1순위 +2순위	전문가	14.8	12.1	18.1	2.7	3.4	1.3
	교사	12.1	3.7	7.4	0.5	4.2	0.5

▶ 미디어교육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초기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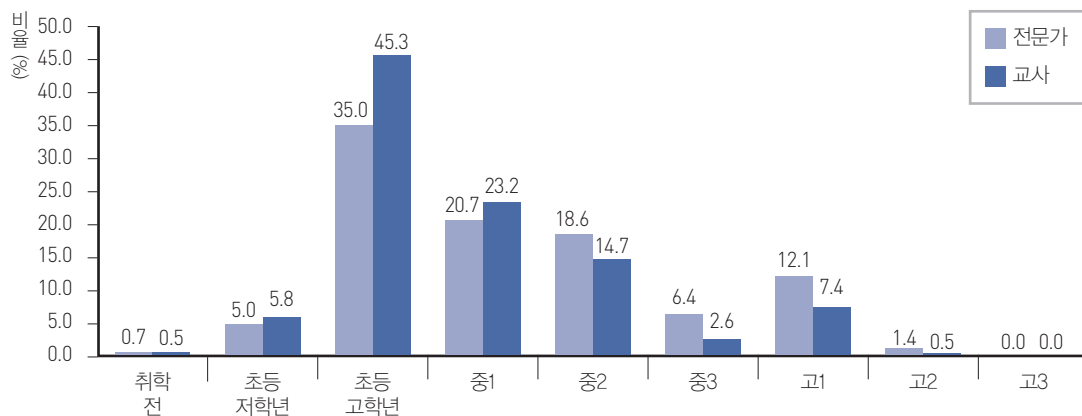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적용할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 모두 '국어나 사회 등 기존 관련 교과목에 미디어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음.
- 이어서, 두 집단 모두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후에 미디어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 '미디어교육이라는 독립교과목을 신설하고 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제도 시행 초기에 적용할 방법

▶ 미디어교육에 적합한 교육대상 학년 및 이유

- 학교 내 제도화된 미디어교육을 특정 학년에만 시행하는 방법을 정부가 채택한다는 가정 하에, 어느 학년이 교육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지를 묻은 질문에 전문가와 교사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 이어서, 두 집단에서 모두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32】 미디어교육 실시에 적절한 대상

▶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

- 학교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전문가 집단과 교사 집단의 견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1+2순위의 경우 톱5의 순위가 똑같았음.
- 1순위만을 놓고 보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전문가 집단에서는 ‘교사 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자료와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교사 집단에서는 ‘자료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전문강사 지원’, ‘교사 연수 강화’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5】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교사 연수 강화	교사 특강 세미나	전문 강사 지원	자료 콘텐츠 개발	학교장의 이해 관심	학부모의 인식 전환	교과 과정에서 미디어 요소 강화	미디어 교육과정 운영 교사 자율성	입시 정책에 반영
1위	전문가	26	8.2	22.6	17.8	8.2	0.7	14.4	2.1	0
	교사	17.4	11.1	25.8	30.5	1.1	2.6	6.3	2.1	3.2
1위 +2위	전문가	37.7	28.1	34.9	39.7	16.4	6.8	23.3	12.3	1.4
	교사	31.6	23.2	37.9	57.9	6.8	8.9	22.1	6.8	3.7

III. 정책제언

- ▶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에 대한 특성에 대해 단계적·융합적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함. 이를 통해 1) 미디어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2) 교급별, 지역별, 학교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3)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란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

- ▶ 매체환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발전하고 있음. 미디어교육이 단순히 기존 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술(media savvy)에 머무른다면 핵심적인 가치는 방관한 채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임.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염려하여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거나 네티켓 등 윤리적 교육에 치우친다면, 이 또한 오늘날 ICT의 발전이 우리사회에 가져다준 무한한 가능성과 장점들을 외면하는 불완전한 미디어교육이 될 것임.
- ▶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은 교육부외에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해왔으나, 이를 일원화된 창구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부부처는 교육부임. 교육부는 기존 창의체험활동,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임. 미디어교육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조화롭게 어울려 시너지(synergy)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일부처의 통합운영이 필요함.
- ▶ 교육부와 교사(단체)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미디어교육의 핵심적 시행주체로 활약해야 함. 기존의 부처, 기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예: 교사양성, 미디어교육 경진대회, 학술회의/세미나 등)을 해오며 쌓은 노하우들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 후 정리·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 기존의 교육정책들이 지역의 상황이나 학교마다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정책의 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앞으로 시행할 미디어교육 정책은 커다란 그림은 교육부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교육부는 이들로부터 정책의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나 보완책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구하고, 미디어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교육부 산하에 미디어 교육을 전담할 중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센터의 역할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교재개발과 강사인력을 배출하고, 상호적 접근방식(interactive approach)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시행에 따르는 각종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는 것임.

- ▶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독립교과목을 신설하여, 관련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학업부담이 급증하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교과목보다는 국어, 사회 등 기존 교과 내용 전반에 걸쳐 통합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통합교과목을 통한 미디어교육의 부분적 시행이 적합할 것임. 또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창의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들과 연계하여 교육효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교육대 및 사범대 등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전공했거나 일정량의 미디어 관련 수업을 들은 예비교사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및 강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미디어교육 제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됨.

참고 문헌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Croteau, D., Hoynes, W., & Milan, S. (1997). *Media/society: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Thousand Oaks, Calif: Pine Forge Press.
- DeGusta, M. (2012). *Are Smartphones Spreading Faster than any Technology in Human History?* MIT Technology Review.
- Kirsh, S. J. (2010). *Media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U.K.: Wiley-Blackwell.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